

# '3퇴'와 평안

제 341기 2018년 11월 3일

2018년 10월 29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1,822만 명**

## 파룬궁 수련생 뉴욕 대행진, 화인 4백여 명 현장에서 '3퇴'

[명혜망] 2018년 10월 21일, 미국 대 뉴욕 지구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들이 뉴욕의 3번째 화인 지역인 브루클린의 8번 대로에서 성대한 행진을 펼쳤다. 이들은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선보였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잔인한 박해를 폭로했다.

동시에 중국 동포들에게 '3퇴(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했다. 현장의 관람객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고, 행진 대오의 품모에 대해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4백여 명은 즉석에서 '3퇴'함으로써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 관람객이 앞 다투어 '3퇴'하다

한 파룬궁 수련생이 40여 세로 보이는 여성에게 연꽃 장식품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복을 가져다 드릴게요. 파룬궁은 진(真), 선(善), 인(忍)을 제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높이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요.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수련하는데, 여사님이 믿는다면 복을 가져올 거예요.” 그 여성은 아주 기쁘게 받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여러분은 멀리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주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수련생이 그녀에게 물었다. “3퇴는 하셨나요?” 그녀는 어려서 붉은 스카



프를 댔다가 일찍이 탈퇴했다고 말했다. 수련생은 그녀에게 그건 나이가 돼서 탈퇴했을 뿐이라며, 애초에 공산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던 독한 맹세를 제거하려면 중공 조직 탈퇴 성명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중공의 소선대 조직 탈퇴 성명에 기쁘게 동의했다. 이때 옆에 있던 관람객이 모여와서 연꽃을 받고 '3퇴'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며, 옆 사람에게 빨리 연꽃을 받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라고 말했다.

행진 대오를 보던 두 젊은이는 용춤을 보

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위풍당당하고, 정말 중국인을 자랑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요고대가 다가오자 그들은 또 말했다. “이 복은 우리 중국인들을 각성시키는 데, 염황의 자손이 마례의 자손이 되면 안 되지. 파룬궁의 말을 듣고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해 평안을 보전해야 해.” 그들은 또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연달아 감사를 표했다.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45명이 중국공산당과 공청단과 소선대 탈퇴 성명을 했고, 124명이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했으며, 250명이 소선대에서 탈퇴했다.

##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3퇴' 후에 복을 받은 이야기

[베이징 투고] 올해 8월 3일, 나는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명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중공은 정권수립 이후로 사람을 해치는 각종 운동을 일으켰는데, 3반, 5반, 4청, 반우, 문화대혁명에다가 1989년 6·4 때는 톈안먼에서 만주먹인 학생을 학살했고, 1999년에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이후로 무고한 백성 8천만을 살해했는데,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조만간 천벌을 받을 겁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이라 '진, 선, 인' 표준에 따라 수련하면서 이름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의 사상 경지를 높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당신 말은 듣기 좋은데, 나는 아직도 당원이예요.” 내가 말했다. “우리 목숨을 중공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입당할 때 중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했던 독한 맹세를 제거하고, 탈퇴('3퇴')를 하십시오.” 그는 좋다고 했다! 나는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한 권을 주었다. 그는 기쁘게 받았다. 헤어질 때 나는 말했다. “마음속으로 늘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면 건강하고 평안해질 겁니다.” 이를 뒤, 공원에서 또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신바람을 내면서 나에게 말했다. “내게 준 그 책은 정말 잘 썼어요. 구구절절이 모두 정말이에요. 나는 80여 세인데, 수많은 것들이 모두 내가 겪은 거예요.”

8월 13일 오전, 공원에서 또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흥미진진하게 며칠 전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했다. “요 며칠 동안 내가 못 온 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요. 그날 내가 공원 근처에 있는데, 차 한 대가 나를 쳤어요. 내 자전거는 앞바퀴가 찌그러져 변형됐고, 나는 자전거에서 튕겨 올라 굴렀는데, 차 위에 던져졌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차 주인이 곧장 나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결과는 내 신체가 멀쩡하고 팔, 다리, 머리에 모두 손상이 없고 피부까지 상한 데가 없었어

요. 혈압이 조금 높았는데, 당시에 내가 정신적으로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의사와 차주가 이구동성으로 나를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나는 이게 틀림없이 월 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파룬궁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또 그 사람은 파룬궁이 선을 닦고 덕을 쌓는 좋은 공법이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공이 선전하는 거짓말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이 공법이 좋다는 걸 인정하면 반드시 건강하고 평안해질 거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날 내가 아주 유심히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자한 태도를 보다가 정말 이 공법이 좋다는 걸 마음속으로 믿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84세 된 이 사람이 이런 교통사고를 만나 자전거 위로 튕겨 나가고도 다치지 않은 건 바로 이 공법 사부님이 나를 구해주신 거예요. 나는 충심으로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려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파룬궁이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며, 신기하다고 했다. 당시 두 사람이 또 '3퇴'에 동의했다.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명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동타이왕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 캐나다 상원 법안 통과, 인체 장기 매매 처벌

[명혜망] 캐나다 상원의원 살마 아틀라안과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제누이스가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상원에서 인체 장기 운송 판매인을 처벌하는 S-24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이를 후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이 국회로 보내져 법률로 제정될 것이라고 대외에 공표했다.

아틀라안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이 법안으로 <형법>이 수정되는데, 인체 장기와 조직의 운송 판매에 관련된 신종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 <이민과 난민 보호법>이 수정되는데, 인체 기관과 조직 운송 판매에 가담한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불허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민부 장관이 인체 장기 운송 판매와 관련해 어떤 활동이든 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캐나다 상원의원들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그중에는 장기 운송 판매 문제를 조사했던 인권활동가도 포함돼 있었다.

전 국회의원이며 아태담당 국무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킬고어는 5월에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상황의 심각성을 강

조했다. 킬고어는 현재 세계 196개 국가 중에서 단 하나의 국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운송 판매 행위를 한다면, 중국이 조종하는 중국에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없다고 말했다.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대량의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얻고 있으며, 주요 공급원은 파룬궁 수련생이다. 이런 행위는 중국 관원에게 1억 달러를 넘는 이익을 안겨주는 업무가 됐다.

메이터스도 공청회 발언을 통해 1999년 중국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중국의 장기이식자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킬고어, 메이터스와 미국 조사기자 겸 작가 에단 구트만은 2016년 공개한 최신 조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적어도 6만 건의 장기 이식이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1만 명을 한참 초과했다고 밝혔다.

“추산하자면 이견 중국에서 매일 대략 150명이 장기 강제 적출 때문에 살해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 속에서 생존자는 없습니다.” 킬고어가 말했다.

## ‘텐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파룬궁 책 속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수련인은 살생이나 자살, 분신자살을 절대 할 수 없다.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 이상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CCTV 화면 속 왕진둥은 태연하게 앉아 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그의 옆에서 대기하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인심 각성] 국보대장은 무관심, ‘610’ 직원이 집으로 데려다 준다

[대륙 투고] 며칠 전, 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하다가 막 제대한 퇴역 군인 두 명을 만났다. 당, 단, 대에 가입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파룬궁(제자)이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나의 손을 움켜쥐고, 한 사람은 내 자전거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공안국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나는 걸지 말라며, 그들에게 파룬궁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했다. 그들이 듣지 않고 연달아 전화를 6~7번 걸었지만, 공안국 사람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대략 한 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나의 손을 놓았지만,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자전거를 놓지 않았다. 나는 자전거가 필요 없다며 가겠다고 했다. 몇 발자국을 가자 그 사람이 자전거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곧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그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나를 가로막았다. 잠시 후 국보대의 차도 도착했다.

국보대 경찰은 원래 상관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근 한 시간을 끈 다음에야 온 것이었다. 40세 가량으로 보이는 경찰이 나의 자전거를 차에 싣자 국보대장이 그에게 말했다. “점심에 쉬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쉬지 않겠어요. 그녀를 지키겠어요.” 국보대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했고, 그때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40세 가량의 경찰이 정오가 되어 대장에게 전화를 걸자 대장은 시간이 없다며 집에서 아이에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한 국보대장은 동창에게 현재 파룬궁 일에 나서서 관여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나중에 책임 추궁이 두렵고, 이 일(파룬궁 박해)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0세 가량의 경찰은 이렇게 달갑게 나를 놓아주려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또 시청에 전화를 걸었고, 5, 6시경에 ‘610(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중국의 불법 기관)’에서 두 사람이 왔다. 그중 한 사람은 아예 방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잡담을 했고, 한 사람은 다가와 우리 둘이 함께 파룬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나는 줄곧 그에게 파룬궁 박해가 장쩌민이 저지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신앙의 자유를 제창하고 있고, 큰 길마다 “인민에게 신앙이 있고, 국가에 희망이 있고, 민족에 역량이 있다”는 표어가 걸려 있어 파룬궁이 ‘진, 선, 인’을 신앙하는 것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못 믿겠다면 당신이 어느 법률 조항에 저촉되는지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했고, 나는 찾거든 다시 말하자고 했다.

어느 새 저녁 7시가 되자 610 직원이 나에게 집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내가 당연히 가고 싶다고 하자 그는 또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끌고 왔으니 나를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610 직원 두 사람은 의논을 하더니 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친구에게 부탁해 전동차에 함께 타고 공안국 앞에 가서 자전거를 몰고 돌아왔다.

현재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박해는 마치 ‘황제의 새 옷’처럼 모든 사람이 황당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바로 이 일을 전담하는 경찰까지도 이전에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을 후회하며, 현재도 다시는 박해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많은 경찰은 암암리에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면서 애초의 죄과를 매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복을 쌓으려 한다! 다만 아무 것도 모르는 소수의 사람이 여전히 파룬궁에 불리한 말을 하고, 파룬궁에 불리한 일을 벌인다. 사실 이렇게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해 악보를 받은 사람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